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2009.12, pp.79~106

# 백석의 기행과 유랑시의 성격 연구

## Studies in Characters of Baeksuk's journey and poems in Vagabondage

유지선(단국대 박사과정)

### 차례

- |                       |                     |
|-----------------------|---------------------|
| 1. 서론                 | 2) 현실 극복을 향한 성찰과 의지 |
| 2. 백석의 기행과 유랑시의 성격 연구 | 3. 결론               |
| 1) 새로운 이상공간에 대한 모색    |                     |

## 1. 서론

백석이 활동하던 시기 1930년대 중반은 문학사적으로 카프가 해산계를 제출하고 문단의 이면으로 잠복하던 때이며, 시문학과로 시작활동을 전개하던 정지용과 김영랑이 각각 첫 시집을 출간하던 시기다. 또한 이효석, 박태원, 김유정 등이 이른바 구인회를 결성하여 순수문학적 경향을 문단의 분류로 이끌던 때이며 최재서, 김기림 등의 영문학자들에 의하여 모더니즘 이론이 소개되던 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학사의 정황 속에서 백석은 문단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유파나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채 작품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그의 개성적인 시의 토대가 되었다.<sup>1)</sup> 그 후 1936년 돌연 《조선일보》 기자직을 사임하고 그해 4월 시인 김동명이 있는 기독교 재단의 함경남도 함흥 영

1) 최인경, 「백석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의 의미」,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4. p.12.

##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생고보의 영어교사로 자리를 옮겨간다. 영어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내의 연극반 활동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축구부 지도교사도 하였으니 백석은 다양한 분야에 재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sup>2)</sup>

이미 출판된 김자야의 『내사랑 백석』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석은 영생고보의 영어교사로 있는 동안 김자야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백석의 생활과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백석은 1936년 「統營」을 시작으로 1939년까지 23편의 기행시를 발표했다. 「南行詩抄」는 경상도 해안 지방을 기행하면서 보고 느낀 연작시 4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37년 발표된 「咸州詩抄」는 함경남도 등 북관을 배경으로 쓰여진 연작시 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8년 발표된 「山中吟」은 함경도의 산을 기행하고 쓴 연작시 4편, 1939년 평안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6편의 연작시 「西行詩抄」 등이 있다.

백석의 초기 시는 시집 『사슴』 이전으로 구분하는데 이 시기는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풍요로운 기억 속의 공동체 세계를 이룬다. 동화적이고 평화로운 이상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지만 일제 치하에서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회복될 수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백석은 새로운 이상공간을 모색하게 되고, 자신이 희구하는 세계를 향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이 『사슴』 이후 등장하는 기행시편이다. 『사슴』에서 보여주었던 '평화롭고 풍요로운 공간으로서의 고향'이라는 이상적 공간과 공동체와의 회귀 의식은 달리 새로운 이상공간에 대한 모색으로 국내의 여러 곳을 두루 살피는 여정에 오르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기행시편들이다. 이 시편들은 '그의 초기시가 고향탐색으로 일관되어 온 것과는 다른, 떠돌이 시인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사슴』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sup>3)</sup>

그러다가 39년경에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만주의 '신경'으로 떠나 유랑생활을 한다.<sup>4)</sup> 백석은 만주의 신경에서도 작품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국내에서 발행

2) 김자야, 『내사랑 백석』, 문학동네, 1995, p.74.

3) 박혜숙, 『백석—우리 문화의 원형탐구와 떠돌이 삶』,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p.45.

4) 임택수, 「치욕의 일년」, 『문장』, 통권 21호, p.182.

된 당시의 문학지 『문장』이나 『인문평론』 등에 「北方에서」, 「흰 바람벽이 있어」 등의 시를 발표하였고, 『조광』이나 『야담』지에 러시아 작가의 소설을 번역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즈음 백석의 작품에는 북방의 서늘한 분위기와 뿌리를 잃은 당대의 지식인들의 내면세계가 담겨있으며, 백석의 작품 중 절창으로 불리는 「許俊」, 「목구」 등이 이 시기의 작품이다. 만주 일원을 유랑하며 쓴 작품들은 시원의 이상공간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좌절과 이로 인한 유랑과 체념을 그리고 있다. 이 시편들은 감상성을 노출하면서 시행이 길어지고 상실과 깊은 슬픔, 그리고 체념 속에서도 이를 초극하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그 당시 측량보조원, 측량서기, 소작인, 세관원 등의 여러 직업을 전전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1941년 4월 『조광』에 발표한 「歸農」을 살펴보면 측량일 뿐 아니라 남의 밭을 얻어 소작인 생활을 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후 백석은 해방이 된 후 고향 정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이 백석의 시작활동에서 기행과 유랑의 생활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후 동경 유학 시절을 위시하여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문사 기자, 교원, 측량서기 등 다분히 방랑적인 삶을 살았다. 이 시기에 발표된 「통영」을 비롯한 「남행시초」에서 이국적 풍경과 그리움의 탐색이 나타나고, 「함주시초」와 「산중음」에는 새로운 이상공간으로서 「북방」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행시초」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정되어 있다. 이렇게 백석의 기행과 유랑시편은 이미 현실에서 붕괴되고 상실한 이상 공간을 찾으려는 여정과 유랑에서 얻어진 시편이다.

본고는 백석의 시에 있어 주요한 면모이자 특성을 드러내는 『사슴』 이후 「통영」을 비롯한 국내를 여행하며 쓴 기행시편과 일제 치하의 현실적인 한계로 새로운 이상공간에 대한 모색의 좌절과 체념으로, 만주 신경 이주 후 발표한 유랑시편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동안 백석의 기행시편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미미하다. 이러한 연구 현실에서 본고는 만주 이주 후의 유랑시편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백석의 시세계에 대한 온전한 탐구의 한부분을 담당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의 현실 상황과 연관된 백석의 세계인식을 어떻게 시화했는지도 살필 것이다.

##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 2. 백석의 기행과 유랑시편에 나타난 성격 연구

## 1) 새로운 이상공간에 대한 모색

—국내 기행시편 「통영」에서 「서행시초」까지

백석은 오산고보 졸업 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의 삶을 살았다. 재복 이전의 그의 삶은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고향 '정주'에서 보낸 유년과 다른 하나는 그곳을 떠나 곳곳을 기행 하던 성년시절이다. 백석이 조선일보 후원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귀국 후 조선일보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그는 전국 곳곳을 기행하면서 그 여행의 흔적을 기행시로 남겼다. 그리고 함흥영생고보에 근무하던 시절,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잡지사에 근무하던 시절, 다시 만주의 신경으로 떠나 생활하던 시절 등 그의 청춘은 온갖 유랑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승원은 백석이 지닌 “방랑적 기질, 식민지 시대의 한계 상황 속에서 명민한 지식인이자 누구든 느껴보았을 질식감과 탈출에의 욕구, 시인으로서 가지고 있었을 세계에 대한 거리감과 고향상실감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sup>5)</sup> 송준은 이승원의 견해에 공감하며 백석 이 겪은 실연의 충격도 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sup>6)</sup>

다음 시 「산숙(山宿)」은 백석이 기행을 시작하고 얼마 후의 시로서 민중적 삶의 모습을 드러낸 시다.

여인숙(旅人宿)이라도 국수집이다

메밀가루포대가 그득하니 쌓인 웃간은 들뜬뜬 더웁기도 하다

5) 이승원, 「백석 시의 절망과 희망」, 『현대시와 삶의 지평』, 시와시학사, 1993, p.86.

6) 송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1』, 지나, 1994, pp.148~156.

송준에 의하면 백석이 만난 여인들 중 시에 나오는 蘭이라는 여인은 통영의 박경련이라는 실제 인물이며, 백석이 여러 번 구애를 하였지만 여자의 집안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녀가 자신과 절친했던 동료이자 친구인 신현중과 결혼함으로써 충격이 컸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그의 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중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내게 그렇게도 삼들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 다'에서 나오는 처녀와 동무는 각각 박경련과 신현중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蘭과 연관된 시로는 「통영(統營) 2」,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남향(南鄉)」이 있다.

나는 낡은 국수분들과 그즈런히 나가 누어서  
 구석에 데굴데굴하는 목침(木枕)들을 베어보며  
 이 산(山)골에 들어와서 이 목침들에 새까마니 때를 올리고 간 사람들을 생각한  
 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생업(生業)과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

-「산숙(山宿)」 전문

이 시의 특이할 만한 현상은 백석이 민중생활사와 민족사적 감수성에 관해 한층 확실하고도 두드러진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숙박과 요식을 겸하는 산골 주막에 투숙한 시인은 ‘모밀포대가루’와 ‘낡은 국수분들’과 또 그것들을 다루며 소박하고 투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까맣게 기름때로 절어 있는 목침을 베고 그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떠난 많은 사람들의 고달픈 내력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용모, 생업, 온갖 서러운 심정들까지 낱낱이 헤아린다. 시인의 방황과 거기 묵고 간 사람들을 통해 비로소 확실하게 민중의 삶을 헤아리며 그들과 긴밀한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깊은 연대감을 이 시에서 나타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시는 서해의 관서지방에 머물던 백석이 겨울 어느 날 여행길에서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로 고향상실에 따른 가족해체의 실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妙香山行)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리(三百五十里) 묘향산(妙香山)  
 백오십리(百五十里)  
 묘향산(妙香山)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自動車) 유리창 밖에

##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내지인(內地人) 주재소장(駐在所長)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빈 차 안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內地人) 주재소장(駐在所長)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졌을 것이다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3」 전문

이 시는 겨울 어느 날 여행길에서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승합자동차에 새 옷을 입고 손잔등이 밟고랑처럼 터진 계집아이가 오른다. 묘향산 백오십리에 사는 삼촌을 찾아가는 계집아이는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식모살이를 하는 것이다. 어린소녀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유리창은 소녀의 마음처럼 새하얗게 얼어 있고 소녀를 배웅하는 일본인 주재소장과 어린아이 둘을 향해 소녀는 마냥 울고 있다. 소녀는 고달픈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운다. 이 울음은 아마도 고향상실에서 오는 서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현실 속에서 소녀는 손잔등이 밟고랑처럼 터지도록 주재소장의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살아왔다. 소녀가 탄 승합차를 통해 시인은 하루 중 가장 차디찬 아침시간과, 텅 빈 차안의 분위기로 더욱 차가운 이미지로 부각시킨다. 우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 차 한 구석의 ‘한 사람’이 눈물을 닦고 있고 시인의 감정 또한 동일시하고 있다. 소녀를 통한 시인의 생각은 마침내 우리 민족의 현실처럼 막막한 신세가 되고 만다. 그것은 마치 우리민족이 고향이라는 공간도 이제는 어떤 의미도 없고 기억 속에서도 잃고 살만큼 의미가 힘들어 찾아갈 수도 없으며 또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어 유랑해야 하는 현실이다. 시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인이 보고 느낀 객관화된 주관의 상징성으로 현실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백석은 자신의 세계관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부단히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는 결국 그 시대의 아픔을 말하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백석은 민족의식을 표면적으로

## 백석의 기행과 유랑시의 성격 연구 7

옴고 있다. 그만큼 백석은 민족적 자각이 분명한 시인이다.

백석의 시 중에서 「통영」에 관한 시가 3편이나 발견된다. 다음 시는 백석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살았던 통영에 관한 시다.

옛날엔 통제사(統制使)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港口)의  
 처녀들에겐 옛날이 가지 않은 천희(千姬)라는 이름이 많다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글썽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이 천희(千姬)의 하나를 나는 어느 오랜 객주집의 생선 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  
 났다  
 저문 유월(六月)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방둥이 붉으레한 마당에 김남  
 새 나는 비가 나렸다

-「통영(統營)」 전문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 안 간 대구를 말리는 곳  
 황화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곳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漁場主)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한다는 곳  
 산(山)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가웃하는 처녀는 금(錦)이라든 이 같고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는데  
 명정(明井)골은 산을 넘어 동백(冬栢)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明井)  
 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걷는 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  
 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긴 토시 끼고 큰머리 없고 오불고불 넘엿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 듯한데  
 동백(冬栢)꽃 피는 철이 그 언제요  
  
 옛 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들충계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울듯 한산도(閑



##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山島)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

넝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나흘 달을 업고 손방아만 짚는 내 사  
람을 생각한다

—「통영(統營)－남행시초(南行詩抄)」부분

통영(統營)장 낮대들었다

갯 한낱 쓰고 건시 한접 사고 홍공단 땀기 한감 끓고 술 한병 받아들고

화륜선 만져보려 선창 갔다

오다 가수내 들어가는 주말 앞에

문둥이 품바타령 듣다가

열이레 달이 올라서

나룻배 타고 판데목 지나간다 간다

—「통영(統營)－남행시초(南行詩抄) 2」 전문

이 시들은 백석이 국내 여행을 한 곳 중에서 ‘통영’이라는 지명으로 3편이나 쓴 시다. 시인에게 통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소개된다. 즉 그가 사랑한 한 여인이 살았던 그리움의 공간이며 동시에 믿었던 친구에게서 사랑의 배신감을 맛보아야만 했던 아픈 공간이다. 세 편의 시 모두 시인이 조선일보사를 근무하던 1936년 초에 발표되었으며 그 해에 시인은 조선일보사를 그만두고 함흥의 영생고보 영어교사로 자리를 옮긴다. 세 편의 시는 1935년 12월에서 1936년 3월 사이에 발표되었다. 채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시인은 ‘통영’이라는 제목으로 세 편을 발표했으나, 이 세 편은 미묘한 정서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첫 번째 시는 한 여인에 대한 만남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그 정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일관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묘사의 이면에는 아련한 그리움이라

절제된 감정의 흔적이 나타나 있다. 시인은 ‘나’라는 주체와 한 처녀와의 만남을 술회하면서 그 만남의 공간인 통영과 풍경을 초점화하고 있다. ‘나’가 만난 처녀는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여자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묘사 속에서도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의 분위기로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시는 시인의 주관적 정조가 첫 번째 시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영은 시인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은 곳인데 ‘금’이도 ‘난’이도 모두 만나지 못하고 ‘돌충계에 주저 앉아서’ ‘이 저녁 울듯 울듯’하고 있다. 시인의 그리움의 정서는 첫 번째 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난’이는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붉게 동백꽃 피는 절엔’ 타관으로 시집을 간 건만 같으며 그래서 “열나흘 달을 업고 손방아만 짚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시인이 어쩔 수 없는 그저 열나흘 달을 업고 생각만 해야 하는 비극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점이 두 번째 시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세 번째 시는 두 편의 시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큰 장이 서는 통영장을 구경하면서 품바타령을 들으면서 시인은 열이레 달을 보며 ‘판데옥’을 조용히 지나간다. 장날의 흥겨운 품바타령 앞에서도 시인은 객관적인 시선만을 유지하고 있다. 시인은 여행을 통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타락한 현실과 일제 치하라는 이중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방법이다. 어찌 보면 시적 화자는 이 시에서 주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막 앞에서 문둥이 품바타령을 듣거나, “나룻배 타고 판데목 지나간다”고 했기에 삶의 현장을 엿보면서 비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김윤식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풍물들을 통해 시인의 역사의식과 현실의식은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시는 대상 세계에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여 대상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시 「고향(故郷)」은 백석이 타향을 기행하다가 만난 의원에 관한 시다.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어 누어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었다  
의원(醫員)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대냐 한다  
 평안도(平安道) 정주(定州)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醫員)은 빙긋이 웃음을 띄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醫員)은 또다시 넋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故鄕)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고향(故鄕)」 전문

이 시는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시보다도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이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정이 묻어 있는 시로서 ‘고향’이 시의 제재이다. 고향을 무대로 거기서 벌어지는 우리의 토속적이고 원형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기’ 및 ‘보이기’의 서술기법과, 서사적 리듬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해 내는 방식이 돋보인다. 이 시는 서사적인 시적 구조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감동을 창출해 내고 있다.

시는 시인이 타향인 ‘북관(北關)’에서 병을 앓아 의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힘든 부분은 역시 병을 앓을 때이다.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배가 되는 시간이다. 병을 앓는 시인은 의원을 찾아가고 첫 대면한 의원의 풍모와 인상을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와 같은 시각적 묘사를 통해 그 의원이 지극한 나이에 더없이 인자하며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임을 환기시킨다. 즉 의원은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닌 마음의 병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인자한 아버지상으로 암축시키고 있다. 연

이어 의원은 나를 객관적으로 진맥하는 의원의 행위와 표정을 서술한다. 의원은 시인을 진맥하는데 “새끼손톱 길게 돌은 손을 내어/묵묵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의원은 또다시 넋지시 웃고/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와 같이 인자한 손길로 정감어린 정황을 생생히 환기시킨다. 그러면서 의원의 진맥과 함께 시인이 주고받는 대화가 삽입된다. ‘의원’이 시인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이에 대해 시인이 정주(定州)라고 대답하자, ‘의원’이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고 다시 묻고, 이에 대해 시인인 그 아무개 씨를 잘 아느냐고 다시 되물자 ‘의원’은 자신과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시인과 의원은 동향 사람이 아니며, 의원과 아무개 씨가 동향 사람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아무개 씨를 통해 고향을 느낀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고향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더욱이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고 인자한 사람이라면 그런 느낌은 더 각별하다. 그런 연유로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자신의 심정적 상태를 독백하듯 말한다. “의원은 또다시 넋지시 웃고/말없이 팔을 들어 맥을 보는데/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라며 시인은 타향에서 느끼는 고향의 그리움과 고향이 불러일으키는 끈끈한 정을 직접적으로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sup>7)</sup>

다음 시 「북관(北關)」은 함경도를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풍경을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명태(明太) 창난젖에 고추무거리에 막칼질한 무이를 비벼 익힌 것을  
이 투박한 북관(北關)을 한없이 끼밀고 있노라면  
쓸쓸하니 무릎은 꿇어진다

시금한 배척한 귀귀한 이 내음새 속에  
나는 가느스름 여진(女眞)의 살내음새를 맡는다

7) 고형진, 「1920~30년대 시의 서사지향성과 시적 구조」, 『현대시의 서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화사, 2003.

##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얼근한 비릿한 구릿한 이 맛 속에선  
까마득히 신라(新羅) 백성의 향수(鄉愁)도 맛본다

-「북관(北關)」전문

백석의 시 중 음식에 관한 것들이 많지만 이 시는 후각과 미각을 동원하면서 함경도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시인의 내면의식도 엿보인다. 창난젓과 고추무거리를 막갈진해서 무이와 비벼 익힌 음식 그대로를 「북관」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 투박한 「북관」을 한없이 '끼밀고' 있으면 '쓸쓸하니 무릎'이 꿇어지는 것은 역사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다. 이것을 역사의식으로 접근해서 북관 음식에서 어렴풋이 여진(女眞)의 살냄새를 맡는 것은 북방의 외침이 잦은 시대에 함경도와 여진의 교류가 잦았음을 알 수 있다. '얼근'하고 '비릿'하고 '구릿'한 맛은 도시적인 맛이 아닌 바로 그 지방의 토속적인 맛이므로 아득히 먼 옛날의 신라 백성을 생각하고 아련한 향수까지도 느낀다.

다음 시 「함남 도안(咸南道安)」은 백석이 만주로 떠나기 전 발표한 것으로서 시인의 방황을 예고하고 있다.

고원선(高原線) 종점(終點)인 이 작은 정거장(停車場)엔  
그렇게도 우쭐대며 달가불시며 뛰어오던 뽕뽕차(車)가  
가이없이 쓸쓸하니 우두머니 서 있다

해빛이 초롱불같이 희맑은데  
해정한 모래부리 플랫폼에선  
모두들 찢찢 끊는 구수한 귀이리차(茶)를 마신다

칠성(七星)고기라는 고기의 찜뽕뽕 뛰노는 소리가  
췌췌하니 들려오는 호수(湖水)까지는  
들죽이 한불 새까마니 익어간 망연한 별판을 지나가야 한다

-「함남 도안(咸南道安)」전문

이 시는 백석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우쭐대며 달기불 시며 뛰어오던” 모습으로 ‘고원선 중점’ 앞에서 또다시 피할 길 없는 숙명과도 같은 ‘망연한 별판’을 바라보고 있다. 정거장에서 쓸쓸히 서서 호흡마저 질식해 오던 서울을 떠나 다시금 만주라는 곳으로 마치 탈출하듯 떠나야 하는 자신의 숙명을 생각한다. 정거장의 풍경과 함께 그가 도착할 만주라는 도시는 백석에게 시를 창조함에 있어 상당히 큰 의의를 부여하게 된다. 만주의 생활은 색다른 이국 체험을 하게 하고 굵은 역사의식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 2) 현실 극복을 향한 성찰과 의지

—만주 이주 후 유랑시편

백석의 전기적 생애를 놓고 볼 때 그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여 1930년 후반에 백석은 국내에서는 그 어떤 전망도 찾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절망도 맛보게 된다. 1940년대 백석은 자신의 삶과 문학에 대한 극심한 회의와 갈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회의와 갈등은 이 시기에 들어서서 더욱 가혹해진 식민지 수탈과 식민지 세력의 팽창 앞에서 망국민으로서 겪게 되는 무력감과 가책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30년대 이래 팽창 일로에 있던 일제의 세력은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 시점에서 극에 달하여지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더 암담했을 것이다. 백석은 전국을 떠돌았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유년기의 평화로운 고향을 기대할 수 없었고, 상실의 정서가 더욱 심화되어 결국 만주로 이주한다. 만주에서의 생활은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느끼는 상실의 비애가 승화된 공간으로 유랑의 슬픔과 그리움이 승화된 원형 공간이다.

다음의 시는 북방으로 건너간 후의 시편 중 존재론적 우울에서 성찰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부여(扶餘)를 숙신(肅愼)을 발해(渤海)를 여진(女眞)을 요(遼)를 금(金)을  
 흥안령(興安嶺)을 음산(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있었다  
 그리하여 파사한 햇기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  
 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 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  
 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한울로 땅으로 — 나의 태반(胎盤)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뉘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의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  
 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북방(北方)에서—정현웅(鄭玄雄)에게」 전문

백석이 만주로 온 일에 대한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한 이 시는 자신이 배반하  
 고 떠난 대상들에게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다. ‘부여, 발해, 범, 사슴, 너구리’  
 등은 민족을 상징하는 대상들로서 그것들을 두고 떠난 자신이 마치 민족을 배

반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시인은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며 바로 외세에 굴복했던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룰 시기가 되어 “나의 태반(胎盤)으로 돌아왔으나” 시인에게 남은 건 상실뿐이었다. 비록 그 당시는 그런 사실들을 몰랐지만 그것을 부끄러움인 줄 알게 된 시인은 태반(胎盤)으로서의 고향에 되돌아와 ‘보래구름’으로 혼자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의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에서 알 수 있듯 근원과 대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상실감에 빠져있다. 이처럼 상실된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토속적인 산골마을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거기서 펼쳐지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민족 그 자체로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의 삶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찾고자 하지만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다.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한 시인은 결국 과거로 시선을 옮겨 그 과거를 통해 위축된 자아를 찾고자 했음을 알게 한다.

다음 시 「목구(木具)」에서 ‘목구’라는 제기는 제의식에서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의 시간적 합일을 드러낸 작품이다.

한 해에 몇 번 매연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킁킁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머머리에 외얏땀건을 지르터 맨 늙은 제관의 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 교우 위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상 위에 떡 보탕 식혜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  
곡과 축을 귀애하고 그리고 합문 뒤에는 흠향 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

구신과 사람과 닮고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줌 흙과 한점 살과 먼 옛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것

내 손자의 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  
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수원 백씨(水原白氏) 정주 백촌(定州白村)의 군세고 곳곳



## 1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하나 어질고 정 많은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의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아 슬픔을 담는 것

-「목구(木具)」부분

‘목구’는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시에서는 ‘목구’를 의인화하여 ‘구신과 사람과 닮고 목숨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줌 흙과 한점 살과 먼 옛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합일의 공간은 바로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시간적 합일로 그 범주가 민족의 역사와 같은 공동체의식을 부여하고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의 위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민족적 시간의 연속성’으로 부여한 이 시는 대대로 맥을 이어 내려온 제사를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잇게 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다. 어질고 정 많은 우리 선조들이 온갖 외침에 꿋꿋하게 굳세게 맞서 민족의 터전과 전통을 지켜 나왔고 호랑이, 곰, 소 등 민족적 상징물을 통해서는 단순한 집안 이야기가 아닌 민족적 고통과 현실을 연관시키고 있다.

다음 시도 백석이 만주 시절에 쓴 작품으로서 슬픔과 숙명의 암시가 자막처럼 펼쳐지는 「흰 바람벽이 있어」 전문이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사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여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찌고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 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  
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흰 바람벽이 있어」 전문

이 시 흰 바람벽에서 시인이 발견하는 것은 쓸쓸하다는 이미지를 드러내는  
풍경이다. 쓸쓸한 내면의 정서와 함께 시인의 고독감을 엿보여준 이 작품은 연  
을 구분 하지 않음으로써 사유의 연쇄가 자연스럽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  
상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영상으로 깃든 상징적인 것들이 묘사되어 이 시의  
분위기가 쓸쓸하고 고독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 시의 화자는 배고픔과 외로움  
에 처해 어느 '좁다란 방'에 혼자 누워 '흰 바람벽'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광경

## 1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은 단정할 순 없지만 시인의 전기적 사실과 시로 미루어 볼 때 만주로 유랑하는 시인의 모습 거의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다. 화자가 거처하는 곳은 “희미한 십오촉(十五錢燭)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있는 곳이며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있는 곳으로서, 여기서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무명샤츠’가 ‘때글은’ 채로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적 화자가 얼마나 곤궁하고 처량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와 동시에 지칠 대로 지친 화자의 마음도 들어있다. 그토록 지친 마음이 간절히 그리는 것은 ‘달디단 따끈한 감주’ 한 잔으로서, 감주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 주는 동시에, 화자의 마음이 느끼는 쓰디쓰고 한기를 삭혀주는 것으로 ‘고향적인 것’을 환기시키는 매개다. 즉 감각적 시어의 통해 시인은 고향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어지는 행에서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향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은 각각 고향적인 향수를 불러내는 역할로 표현되는데 어머니는 추운 날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시집가 “지아비와 마주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사람이다. 이것은 화자가 어머니와 사랑하는 이를 통해 진한 향수를 대신한 것이며 또한 그 고향적인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것을 깨달은 화자의 우울한 내면이 반영된 결과다. 화자는 왜 나고 자란 고향을 버리고 낯설은 먼 땅 좁다란 방안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화자가 나고 자란 고향 땅의 향기가 사라졌거나 소실되었다고 보지만 그건 쉽사리 답변할 수 없는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백석의 만주행은 식민지적 상황으로부터의 저항이나 그로부터의 도피로 보는 것이 그럴듯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대로 진실로 보기에는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자야 여사의 회고처럼 백석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과 부모의 강권에 의한 결혼의 갈등으로 인해 백석이 먼 땅을 향해갔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생각이다. 그 정확한 배경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본다. 백석의 시가 초기의 『시습』 시편과, 중기의 기행시편들, 그리고 후기의 북방시편들에서 그 나뭇의 모습과 특질을 갖고 있는데 그 내적 자질이 ‘고향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에 연관되어 있다. 백석의 시 전편은 어찌 보면 ‘고향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의 변주라고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때때로 화평했던 유

년시절의 고향에 대한 의식적인 구성으로, 때로는 여행을 통한 상실과 그리움의 교환 작용으로, 때로는 자기위안 및 자존 그리고 내면공간의 충일과 성찰을 통한 초월의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석의 시적 전개 모습이다.<sup>8)</sup>

이 시의 쓸쓸한 정황은 스스로 비탄에 빠지지 않고 그리운 사람들을 회상함으로써 그러한 정황에 처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어머니나 사랑하는 여인과 떨어져 살아가는 처지지만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이라고 해도 좋을 자기애를 발견하게 한다. 이 시에서 시인은 절망적 상황을 단순한 절망으로 읽는 것을 경계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생각 속에는 시인의 처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다. 백석 시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늘이 사랑하는 자’로 규정하므로 그 시대 자신을 짓누르던 현실의 고통을 의지의 정신으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다음 시는 아름다운 우리말의 복원을 꿈꾸는 백석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시 「허준(許俊)」이다.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파사하고 살뜰한 별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것이다  
쓸쓸한 나들이를 단기려 온 것이다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날 때든가  
추운 겨울밤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어  
말없이 무릎 위 어린 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 때든가

8) 유준, 「백석 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 2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 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하늘이 떠오를 것이고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빼여진 어췌죽지에  
 당신네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높은 산도 높은 꼭다기에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듯한 당신네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높을 것인가  
 바람은 얼마나 따사하고 향기로운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바람결 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 것인가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시인은 안다  
 ‘도스토이엠프스키’며 ‘쥘리앙’며 누구보다도 잘 알 알고 일등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것에게 옛 한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아내에게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거저 주는 그 인정을 그리고 또 말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뉘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 말을

그 멀은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시인이 또 계사니처럼 떠든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둑판을 당기는구려

-「허준(許俊)」 전문

이 시는 백석이 만주에 있을 때 당시 친구였던 ‘허준’을 생각하며 쓴 시다. 마치 친구가 옆에 있어 말을 거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서적 표출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시의 전반에 ‘-이여’나 ‘당신’이라는 어사가 시 전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의 내면 구조는 소설가 허준에게 보내는 찬사로

보여진다. 백석은 시에서 허준이라는 소설가를 절대화 시켜놓고 있다. 마치 허준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나들이를 온 천상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온 나라는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이며, 따뜻하고 살뜰한 별살의 나라이다. 그리고 허준의 나들이는 흥겹고 즐거운 나들이가 아니라 허준과 같이 맑고 고결한 존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으로의 여행이기에 ‘쓸쓸한 나들이’로 묘사된다. 우리가 아는 나들이는 흔히 ‘지치운 다리’, ‘짜증이 있는 거리’를 지나거나, ‘추운 겨울 밤 병들어 누운’ 친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들이는 ‘쓸쓸한 나들이’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렇게 ‘나들이의 우울’을 가져오는 세상은 ‘그 맑고 거룩한’ 그리고 ‘따사하고 살뜰한’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한 것이다.

백석은 이 시에서 허준을 천상적인 존재로 말하는데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詩人”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백석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단순히 허준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쓰여진 시다. 그러나 허준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며 훌륭한 소설가이다. 허준 자신은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엇가락 하나 아끼고, 아내에게는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낯선 사람에게는 ‘수백냥’을 거저 주는 따뜻한 인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묘사를 통해 허준의 모습은 시 속에서 백석 자신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백석의 후기 시에서 현실 부정에 대한 초월적 인식의 모색을 통해 자기 절대화의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뉘 하나를 얻는다”는 허준의 말은 초월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속악한 현실 속에서는 물질적 궁핍이나 상실감을 느끼더라도, 뉘으로 표상되는 ‘정신적 세계만이 인간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의식은 백석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 그러므로 이 시 속에서 백석은 ‘뉘 하나’를 얻기 위해 상실의 현재를 이겨내며 마음속에 여유와 넉넉함 그리고 연민, 사랑 외에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지켜내는 것으로서 내적 투쟁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얻었다.

다음 시 「호박꽃 초롱」 서시」는 아동문학가 강소천에게 주는 헌시로 보이나,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아래에서 살펴보자.

한울은

## 2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울파주가에 우는 병아리를 사랑한다  
 우물돌 아래 우는 돌우래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버드나무 밑 당나귀 소리를 암내내는 시인을 사랑한다

한울은  
 풀 그늘 밑에 샷샷 쓰고 사는 벼를 사랑한다  
 모래 속에 문 잠그고 사는 조개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두툼한 초가지붕 밑에 호박꽃 초롱 혀고 사는 시인을 사랑한다

한울은  
 공중에 떠도는 흰 구름을 사랑한다  
 골짜구니로 숨어 흐르는 개울물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아늑하니 고요한 시골 거리에서 쟁글쟁글 햇볕만 바래는 시인을 사랑한다

한울은  
 이러한 시인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는데  
 이러한 시인이 누구인 것을 세상은 몰라도 좋으나  
 그러나  
 그 이름이 강소천(姜小泉)인 것을 송아지와 꿀벌은 알을 것이다

-「'호박꽃 초롱' 서시」 전문

이 시는 아동문학가 강소천의 『호박꽃 초롱』에 백석이 붙인 서시이다. 외형적으로는 강소천에게 붙이는 헌시로 보이나, 그 속에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자긍감이 들어있다.<sup>9)</sup> 하늘은 ‘병아리’, ‘돌우래’를 사랑하지만 “버드나무 밑

9) 유준, 앞의 논문, p.60.

당나귀 소리를 입내내는 시인”을 사랑하며 ‘벚’이나 ‘조개’도 사랑하지만 “두툼한 초가지붕 밑에 호박꽃 초롱 혀고 사는 시인”을 사랑한다. 하늘은 또 ‘흰 구름’과 ‘개울물’도 사랑하지만 “아득하고 고요한 시골 거리에서 쟁글쟁글 햇볕만 바래는 시인”을 사랑한다. 이 시인의 모습은 모두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시인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하니 그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시인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세상은 몰라줘도 시인은 하늘이 알아주는 자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살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다음 시는 백석이 중국인 지주의 땅을 경작하며 식민지 시대에 지식인이 어떻게 대지와의 합일을 이뤄 가는지 말하고 있다.

백구둔(白拘屯)의 눈 녹이는 발 가운데 땅 풀리는 발가운데  
 촌부자 노왕(老王)하고 같이 서서  
 밭최뚝에 봄부러진 땅버들의 버들개지 피어나는 데서  
 별은 장글장글 따사롭고 바람은 술술 보드라운데  
 나는 땅임자 노왕한테 석상디기 발을 얻는다  
 (중략)

날은 찡챙 좋기도 좋은데  
 눈도 녹으며 술렁거리고 버들도 잎트며 수선거리고  
 저 한쪽 마을에서는 마뚝에 닭 개 증생도 들떠들고  
 또 아이 어른 행길에 트랙에 사람도 웅성웅성 흥성거리  
 나는 가슴이 이 무슨 흥에 벅차오며  
 이 봄에는 이 밭에 감자 강냉이 수박에 오이며 당콩에 마늘과 파도 심그리라 생각  
 한다

-「귀농(歸農)」부분

이 시는 백석이 비록 자신의 고향이 아닌 중국인 지주의 땅을 소작하지만 직접 경작준비를 하는 점에서 다른 시보다 더욱 밀접한 그 시대의 상황을 알게 한



## 2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다. 시인이 함흥, 서울, 만주 등지를 떠돌았지만 이렇게 농토를 직접 경작하므로 식민지 상황에서 백석이 얼마나 곤궁한가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날은 똥쟁 좋기도 좋”다며 ‘버들도 잎트며’, “마뚝에 닭 개 증생도 들떠들고” 사람들도 흥성거린다며 자연의 합일을 통해 과거의 방황을 끝내고 대지와와의 합일을 이루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시인은 지식인의 세계를 벗어나서 노동의 희열에 빠지고 싶은 중농주의적 여유로 가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시인의 더욱 깊은 마음속의 열망은 식민지 시대가 종식되고 내 고향 땅에서 봄이 되면 “밭에 감자 강냉이 수박에 오이며 당콩에 마늘과 파”도 심어 진정한 영토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결론

본고는 위에서 백석이 오산고보 졸업 후 전국을 여행하며 쓴 「통영」 이후 「서행시초」까지 기행시편과 39년 후반 만주로 이주부터 45년 해방 후 정주로 돌아오기 전에 쓴 유랑시편을 중심으로 그에 나타나는 성격을 고찰하였다. 백석 시세계의 지향점은 ‘동화적이고 평화로운 이상공간인 고향’의 회복이었지만, 이미 그것은 일제 치하의 민족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회복될 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백석은 새로운 이상공간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나타난 국내를 여행하며 쓴 기행시편들이다. 이 시편들은 백석 자신이 회구하는 세계를 향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 기행시편들은 그의 초기 시가 고향탐색으로 일관되었던 것과 다르게 떠돌이 시인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며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사슴』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통영」을 비롯한 「남행시초」에서 이국적 풍경과 그리움의 탐색이, 「함주시초」와 「산중음」에는 새로운 이상공간으로서 ‘북방’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행시초」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새로운 이상공간을 모색하고자 나선 여행은 결국 일제치하라는 냉혹한 현실의 한계로 백석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주로 유랑의 길을 가게 된다. 만주로 이주한 후 쓴 시편들은 대체로 쓸쓸함의 정조를 지니지만 그 이면

에는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백석에게 만주는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느끼는 상실의 비애가 승화된 원형적 공간이다.

시 「목구(木具)」는 식민지 상황에서의 위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민족적 시간의 연속성’으로 부여하며 대대로 맥을 이어 내려온 제사를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잇게 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담겨있다. 「흰 바람벽이 있어」는 슬픔과 숙명의 암시가 자막처럼 펼쳐지며 이 시에서 시인은 절망적 상황을 단순한 절망으로 읽는 것을 경계한다. 백석 시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늘이 사랑하는 자’로 규정하므로 그 시대 자신을 짓누르던 현실의 고통을 의지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있다. 「호박꽃 초롱」 서시는 아동문학가 강소천에게 주는 헌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인의 자의식과 자긍감이 들어 있다. 「북방에서-정현웅에게」와 그리고 「허준」, 「귀농(歸農)」 등은 백석이 북방으로 건너간 이후 존재론적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북방에서-정현웅에게」는 백석이 만주로 오게 된 상황에 대한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엄혹한 현실을 만족하지 못한 시인이 결국 과거로 시선을 옮겨 그 과거에서 자아를 찾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허준」은 아름다운 우리말의 복원을 꿈꾸는 백석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시이다. 식민지 상황에서 시인의 남기고 싶은 것은 ‘시인의 닻’이며 우리의 ‘풍속’과 ‘인정’과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귀농」은 백석이 중국인 지주의 땅을 경작하며 식민지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자아 회복을 대지와와의 합일을 통해 이루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백석의 기행과 유랑 시편에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정신으로 ‘높고 귀한 정신’을 품고 살아간 백석의 시세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부재를 서러워하고 아파했던 대상과,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대상들이 엄혹한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사라진 것에 대한 시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석은 식민지 시대라는 냉혹한 현실로 인해 이상공간의 추구가 좌절되는 절망으로 만주로 이주했지만, 모국어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시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 2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참고문헌**

- 김자야, 『내사랑 백석』, 문학동네, 1995.
- 김재용, 『백석전집』, 실천문화사, 1997.
- 고형진, 「1920~30년대 시의 서사지향성과 시적 구조」, 『현대시의 서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학사, 2003.
- 박혜숙, 『백석-우리 문화의 원형탐구와 떠돌이 삶』,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 이동순,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 이동순, 『모닥불(백석시전집)』, 솔출판사, 1998.
- 이승원, 「백석 시의 절망과 희망」, 『현대시와 삶의 지평』, 시와시학사, 1993.
- 유 준, 「백석 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임학수, 「치욕의 일년」, 『문장』 통권 21호.
- 송 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1』, 지나, 1994.
- 송 준, 『백석시전집』, 도서출판 학영사, 1995.
- 최인경, 「백석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의 의미」,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Abstract

## Studies in Characters of Baeksuk' s journey and poems in Vagabondage

you, ji-sun

This study examined Baeksuk's journey in Korea and his travel poems that were published after his emigrant to Manchuria, which have studied by few scholars. The orientation of his poems is a world that is full of the fairy tales and of the peace, but it is a world that he couldn't go back in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Under this tragic situation he just traveled across Korea to see the new ways and to find his utopia. He wrote the compilation of travel poems in the mean time. By showing a new aspect of the traveling poet this compilation have a different form and content that is unlike <a deer>, his earlier poems focusing on the hometown. Apparently, there are many poems that described the landscape which he found in his journey as a traveler. Most of the poems, however, reflected his personal feeling about a certain place, depicted it in an objective and temperate way and contained his tragic point of view that is similar to an unrequited lover. Furthermore, he attempted to seek a whole new way beyond the objective point of view and the double-layered space that was consisted of the corrupted reality around him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uring his emigration to Manchuria, his works suggests the feelings of grief and of the destiny with a submission to leave Seoul. Although the internal sentiment of those poems is generally his solitude, the sentiment also includes a strong and tender will to overcome the situation. That is to say that

2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Backus's life in Manchuria was a sublimated space from the feeling of the forfeit as a foreigner, and an arche-space that sublimated the sorrow and the longing occurred during his vagabondage. Through this vagabondage around Manchuria, he did not only rediscover himself in the life of the folks of Manchuria, but could poetize the suffering and pain from the reality.

Baeksuk couldn't overcome the desperation, the cruel situation around him, and the misfortune to live in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 consequence that made him to emigrate to Manchuria. By this study, nevertheless, I suggest that he was the poet with a clear sense of his mother tongue and a historical consciousness.

주제어 : 백석(Baeksuk), 기행시(Traveling Poetries), 유랑시(Poems in Vagabondage), 고향탐색(Searching for Hometown), 비극적 인식(Tragic Perception), 원형 공간(Arche-space)